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8;57(1):96-105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한국의 전통문화와 영성(靈性) : 정신의학에의 적용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 수 철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Spirituality : Its Application to Psychiatry

Soo Churl Cho,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orea Armed Forces Capital Hospital, Seongnam, Korea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pirituality in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o apply these to the basic concepts of psychiatry.

Methods The author interpreted books concerning traditional culture, including God-concept, death-concept, world-view of afterlife, Shamanistic thinking, traditional religion, as well as traditional culture in general, such as play, music, art, dance, literature, pottery, architecture, naming method, authentic recordings (Shillock), and Hangul.

Results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spirituality reflected in the reviewed materials was 'Gegensatzvereinigung' which means the unification of opposing concepts. The unity of the Western and Eastern cultures, the old and the new, death and life,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concrete and the abstract are examples of 'Gegensatzvereinigung.'

Conclusion The ultimate goal of psychiatric treatment is to maintain the harmonious interaction among thinking, affect and behavior. Furthermore, the most harmonious interaction is to unify into one. Thus, the spirituality of traditional culture can be applied to psychiatric treatmen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8;57(1):96-105

KEY WORDS Spirituality · Korean traditional culture · Psychiatry.

Received January 15, 2018
Revised February 5, 2018
Accepted February 6, 2018

Address for correspondence

Soo Churl Cho,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Korea Armed Forces Capital Hospital,
81 Saemaeul-ro 177beon-gil,
Bundang-gu, Seongnam 13574, Korea
Tel +82-32-725-6081
Fax +82-32-725-6087
E-mail soochurl@snu.ac.kr

서 론

최근 ‘통섭’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통섭은 윌슨(Edward Wilson)의 저서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를 Choi와 Jang¹⁾이 번역을 하면서, consilience라는 단어를 통섭(統攝)으로 번역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consilience’는 윌리엄 휴웰(William Whewell)이 ‘귀납적 과학의 철학(1840)’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광범위한 설명력을 갖는 원리로서 ‘consilience’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윌슨이 차용한 단어이다.¹⁾ 통섭(統攝)이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큰 줄기를 잡다’인데 그 의미는 각 학문 간의 벽을 없앤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2006년 서울대학교에서 ‘미래대학과 융합학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는데, 이 토론회에서 “21세기의 학문은 분리과학과 종합과학이 통섭, 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된 바 있다.²⁾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보람된 인간의

삶’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보람된 인간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는 모든 학문 간의 벽이 없어지고 서로 협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문 간의 협조 또는 교류에서 다학제간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이상적인 접근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학제간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더 나아가서는 범학제간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이 이상적인 접근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 이들 간의 차이는 다른 학문과 협조체계를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학문을 변화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즉 자신은 전혀 변화가 없이 물리적인 입장에서의 상호작용이 다학제간 접근이며,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감수하는 화학적 상호작용이 간학제간 접근이고,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에서의 상호작용이 범학제간 접근이다. 진정한 의미의 통섭적 접근은 범학제간 접근일 것이다.

WHO는 현재 인간의 well-being을 정의하면서 bio-psycho-social model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신의학의 기본

모델도 WHO의 모델을 따라 bio-psycho-social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정신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통합적 접근에서 환원적 접근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 현재의 모델은 인간을 통섭적인 입장에서, 전체로서 보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WHO의 기본 모델에 영적인 접근을 추가하여 정신의학 분야에서 bio-psycho-socio-spiritual model에 입각하여 접근하여야 인간을 전체로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종교, 문학, 철학 그리고 예술은 인간의 영적인 면을 다루는 분야로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은 이 4가지 분야와 완전히 떨어지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³⁾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전통문화의 특징과 영성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핵심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이에 입각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이에 입각한 정신병리의 이해에 있어서 bio-psycho-socio-spiritual model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치료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다.

방 법

연구는 문헌고찰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사상과 관련된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사상이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아울러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조사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다.

- 1) 신관(神觀), 사관(死觀), 저승관
- 2) 무속사상
- 3) 가신신앙
- 4) 전통사상과 종교
- 5) 전통적 문화사상
 - (1) 전통놀이
 - (2) 음악
 - (3) 미술
 - (4) 서예
 - (5) 춤
 - (6) 문학
 - (7) 도예
 - (8) 건축
 - (9) 작명
 - (10) 실록
 - (11) 한글

결 과

신관(神觀), 사관(死觀), 저승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관(神觀)에서는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를 믿으면서 조상신도 모신다. 토속신들은 자진하여 아류신 또는 시종신으로 들어간다. 기독교를 믿으면서 사주, 관상도 보고 고사도 지낸다. 따라서 외래종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모두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다.⁴⁾ 신들이 서로 뚜렷한 계급이 없고 서로 비등한 권력을 지닌다. 신들이 전능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고, 인간보다 약간 나은 능력을 지녔을 뿐이다. 인간도 사후에 신들이 될 수도 있고, 신들이 수시로 인간 내부에 들어와 살기도 하고 인간과 꼭 마찬가지로 배고픔도 겪고 슬픔, 기쁨, 사랑, 미움 질투도 느낀다.⁵⁾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관(死觀)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다. 3년 상 후에도 2년 동안 조석으로 상식을 올린다. 기제사도 지내고, 4대 봉사 후 시제를 지낸다. ‘돌아가시다’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제사에서는 문을 열어 두어 신(혼)이 들어오도록 한다. 전통적인 영혼관에서 영혼은 지상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저승에 갔다가 오기도 한다.⁶⁾

전통적인 저승관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나 기독교에서 존재하는 영혼에 대한 구제사상이 없다는 점이다. 저승은 누구나 옮겨 다니는 또 하나의 공간이며 이승과 저승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죽은 후 누구나 함께 사는 공간이며 따라서 미분화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말뚝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승에서 한을 품으면 저승에 가지 못한다’ 등의 표현은 저승보다는 이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⁷⁾

종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영혼관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조의 즉위교서 제1항에 종묘를 세우라고 명시되고 있으며 국가의 근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묘는 조선 왕조 500년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에는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재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종묘에 온 왕이 잠시 머물던 곳이며 영녕전에는 태조 4대의 선조와 34분의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신위가 들어 있는 곳을 감실이라고 부르며 신위는 깨끗한 천(적원)으로 싸여 있다. 왕은 하얀색, 왕비는 청색의 천으로 싸여 있다. 신위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영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다. 종묘 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유교의 전통적인 의식과 음악으로서 한국인의 혼과 영을 대변하며 조상들의 삶을 기리고 조상에게 바치는 춤과 노래, 제사를 지내는 전통의례가 포함되어 있

다는 점이 고려되어 2001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⁸⁾

무속신앙

무속인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로서 인간의 의지를 하늘에, 하늘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다. 무속은 고대사회로부터 한민족의 주요한 신앙형태가 되어왔다. 한민족이 이 땅으로 이동 시 이미 무속을 가지고 왔으리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우랄 알타이계 민족들에게서 유사한 형태의 무속이 발견되기 때문이다.⁹⁾ 단군도 바람과 구름, 그리고 비를 다스리고 곡식의 풍흉도 함께 관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을 다스림으로써 수명도 다스렸다. 즉 사제자와 통치자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마한의 천군(天君), 신라의 차차웅(次次雄) 등 고대의 군주들은 모두 무당의 기능도 함께 보유하였다. 고려시대의 사무(師巫), 이조시대 무청(武廳)은 무당과 관련된 공식적인 정부의 기구였다. 이러다가 무당이 지나치게 정사에 관련하여 폐해가 커지자 금무령(禁巫令)이 내려지기도 하였다.¹⁰⁾ 무속신앙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들 조상들의 삶 속에 녹아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소견이라 하겠다. 무속은 현실세계와 영계의 중계자로서 신이나 영적 존재의 뜻을 탐지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제자의 기능, 주술적으로 병을 고치는 의무의 기능, 예언자의 기능, 인간의 생사화복을 조절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였다.¹¹⁾

Rhi¹²⁾는 무당의 점이나 굿에서 정신치료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합리적 치료요소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그 과정에는 원형적 요소(archetype)가 있으며 인간 무의식의 갈등을 승화시켜 나가는 원형의 상징적 해결방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Kim¹³⁾도 무당의 굿이 초자연적이며 미신적인 요소가 있으나 나름대로 정신치료적인 요소를 갖춘 하나의 원시적 정신치료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또한 Hahn¹⁴⁾는 무속이 한국인의 생활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서로 협동하여 사는 삶의 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급종교에 선행하는 자연종교의 신앙형태가 무속으로, 불교, 기독교, 카톨릭에서 승려, 목사, 또는 신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무당의 명칭은 무, 무당, 단골, 심방으로 불리는데 단골은 호남지역의 세습무를 뜻하며, 심방은 제주도 지역의 세습무를 뜻한다.

무당은 성무(成巫)동기에 따라 강신무, 세습무로 구분되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 무당형, 단골형 심방형, 명두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¹⁵⁾

가신신앙(家神信仰)

가정신앙 또는 가택신앙이라고도 불리는데, 집안 곳곳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 다음과 같은 신령들이 있다.

- 1) 성주 : 대청마루 또는 안방 차지하는 신령으로 새로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모시는 신령이다.¹⁶⁾
- 2) 터주 : 집터를 다스리는 신령으로 장독대에 있다고 믿는 신령이다.¹⁷⁾
- 3) 삼신할머니 : 아이의 출생과 건강 그리고 수명을 담당하는 신령으로 안방 아랫목에 있다고 믿는다.¹⁸⁾
- 4) 조왕 : 부엌의 아궁이와 부뚜막을 관장하는 신령으로 신성하고 정갈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깔려 있다.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는 조왕을 극진히 위하는 신앙이 있다.¹⁹⁾
- 5) 업(업신, 업왕신, 업왕) : 광이나 공간에다 재복을 가져다주는 은밀한 가신으로 홀대하면 패가망신하고 잘 대해주면 부자로 만들어준다. 업신으로는 동물이 등장하는데, 구렁이가 흔히 업신이 된다. 구렁이가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믿으며, 족제비나 두꺼비도 업신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업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며느리를 맞아 부자가 되면 큰 업을 받았다고 한다.²⁰⁾
- 6) 그 밖의 신 : 이외에도 집안 곳곳에 신령들이 존재한다. 측신은 변소에, 대감은 광에, 문신은 대문에, 칠성신은 장독대에 있다고 믿는다.²¹⁾

전통사상과 종교

민간 속에 뿌리 잡고 있던 민간신앙이 워낙 강하고 침투력이 강하여 대부분의 외래 종교는 전통사상에 의하여 변형된 형태로 수입된다. 더 나아가서는 교리 혼합(敎理混合, syncretism)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²²⁾

불교와 아류신

인도 당시의 신상(神像)

금강신, 금강밀적, 명왕, 대법천왕, 아수라왕, 알라왕 등이 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왕

칠성신, 시왕신 등이 있다.

우리나라 토속신

산신, 조왕신, 문호신, 수신, 목신, 해신, 일월신, 도로신 등이 있는데 강한 신앙적, 민속적 의미를 갖는다.

자기 집이나 개인에게 재앙이 들었을 때에는 산신불공을

드리며, 칠성불공은 자녀들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불공이다. 이처럼 토속신도 주대상신이 된다. 불교가 전통신앙과 조화를 이루는 예로는 고성사를 들 수 있는데 법당 뒤에 아예 산신각, 칠성각을 세우고 있다.²³⁾

유교와의 관계

조상을 생명의 창조자로서, 조상의 영혼은 자손의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교에서의 생활규범으로서의 예(禮)나 효개념 이상의 개념이 내포된다. 제사 모시는 시간, 음식 등이 변형되며 제사를 잘 모시면 복을, 무성의하게 모시면 화를 부른다는 사상은 전통사상이 유교에 영향을 미친 예라고 할 수 있다.²⁴⁾

개신교와의 관계

개신교가 무속신앙에 의하여 변형되었다.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새벽기도회는 서구에서는 없는 기도회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도회인데, 이는 조왕 신앙 및 무당의 신령모시기 관행에서 유래된 것이다. ‘주여 3창’도 한국교회의 특이한 현상으로 멀리 떨어진 신을 임시로 불러들이는 의식으로 이것을 3차례 반복하는 것은 무속의 제의에서 청신(請神)을 할 때 3차례 반복하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산기도, 철야기도 등도 서구의 개신교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며 무속신앙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력을 얻기 위하여 단골들과 함께 산속에서 기도도 하고, 또 무당의 굿판이 초저녁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심방제도도 한국의 특이한 제도로 단골에 대한 무당들의 봉사로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신봉자들을 돌보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4월의 초파일마지, 7월의 칠석마지, 가을의 햅곡마지, 산재풀이 등도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부흥강사들의 거친 언어 반말 등도 무당의 공수에서 유래된 것이다. 공수의 주체가 무당 자신이 아니라 신령이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하는 반말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²⁵⁾

전통적 문화사상

이에는 전통놀이, 음악, 미술, 서예, 춤, 문학, 도예, 건축, 작명, 한글, 실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전통놀이

하회별신굿 탈놀이

중요무형문화재 69호로 지정된 놀이로서 놀이 문화의 정점을 이룬다. 무용과 조각, 연극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지는

총체적 예술이다. 양반의 허위와 위선을 꼬집고 야유도 한다. 그래도 양반과 선비들이 즐겨 별신굿에 동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탈굿의 뒷돈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또한 서민들은 사인(士人)과 양반들의 뺏놀이인 선유(船遊)를 정성껏 준비해 주기도 한다. 서로 상대방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끼려 했던 마음이 바탕이 된 놀이다. 양반문화의 품위는 사실 서민문화의 힘이 그만큼 튼튼하게 받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흥성과 현장성이 강조된다. 민(民)의 신명과 예(禮)의 정신이 하나가 된다.²⁶⁾

헛제사밥 놀이

흥년이 들면 유생(儒生)들이 모여 가짜 제문까지 지어 가짜 제사를 지낸 다음 그 제상의 음식을 먹는 데서 유래한 이름의 놀이이다. 도라지, 고사리, 산적, 자반고등어, 가오리, 쇠고기 등 총 망라된다. 배가 고파도 함부로 배고프다고 할 수 없는 유생들의 체면도 살려주고 포식도 할 수 있게 하는 절묘한 발상의 음식상이다. 하회 마을 자체가 정중동(靜中動)의 예술공간을 이루며 움직이는 산수화다.²⁷⁾

놋다리 밟기

정월 대보름에 노부인, 며느리, 손녀까지 부녀자들만 모여 낭자하게 벌이는 놀이로서 문벌과 남성 위주의 집성촌에서 억눌렸던 평소의 울화를 밖으로 토해내는 놀이다.²⁷⁾

전통음악

농 악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의례라는 점, 노래, 춤 그리고 음악이 녹아있는 연극이라는 점,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승된 점 등이었다. 이 농악 속에도 우리 민족의 혼이 함께 하고 있다.

아리랑, 정선

100가지 이상의 아리랑이 있고, 이 중 30여 종 정도가 아직 살아있다. 정선 아리랑은 채집된 것이 1000여 수 된다. 진정 우리나라는 아리랑의 땅이요, 아리랑의 민족이라고 할 것이다. 아리랑은 사랑, 그리움, 슬픔 그리고 이별을 노래하지만 미움이나 증오는 없다. 갈등은 있어도 원망이나 비탄은 없으며, 끌어안고 감쌀 뿐이다. 오로지 자연스럽고 순한 가락으로만 되어 있다.²⁸⁾

2012년 남한의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북한의 아리랑도 2014년 11월 26일 유네스코 인

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진도의 노래들

진도의 노래들은 동편제, 서편제 등 판소리 12마당 정맥의 계보에 들어있지 않은 외가(外歌) 즉, 판소리의 속악(俗樂)에 속하는 노래들이 많다. 진도의 노래 단가는 ‘노동요’로 불리는데 생활과 노래와 일이 하나가 된다. 일하며, 흥얼대며, 흥얼거리며 일하다 보면 노래가 만들어진다.

노랫말이 다듬어지지 않은 일상구어체가 되며 진도소리는 가무악(歌舞樂)이 충체를 이룬다. 예부터 진도는 시서화무(詩書畫舞)가 두루 만발한 고장이었다. 세계민속음악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있는 진혼무곡 〈씻김굿〉을 위시하여 〈다시래기〉, 〈진도만가〉, 〈진도아리랑〉, 〈육자배기〉 등 다양한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²⁹⁾

강도근(1916~1998)

판소리 인간문화재로서 명창 송만갑의 수제자 김정문 문하의 동편제 구전전수자. 남원에서만 활동하였다. 섬진강을 경계로 전라도 동쪽의 판소리 유파를 동편제라 이르는데, 남원, 임실, 전주, 구례, 순천, 정읍, 고창이 주된 지역이다. 특히 남원에서는 많은 명창들이 배출되었는데 송홍록, 박문순, 정춘풍, 박기홍, 송만갑, 유성준 등이다. 단순, 소박하며 대범하고 웅장한 기풍을 자랑한다. 끝을 똑 잘라서 맺는 특징이 있다.

서편제는 섬진강 서쪽, 전라남도지역 함평, 나주, 해남, 강진 등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창으로 철종 때의 박유전, 정창업, 이날치, 김창환 등 명창을 배출하였다. 소리는 정교하며 애잔한 맛을 내며 끝을 길게 끈다. 중고제(中高制)는 내포제(內浦制)라고도 불리는데 충남, 예산, 당진, 서산, 홍성, 내포, 및 경기지역을 발달한 노래이다. 순조 때의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김창룡, 조학진 등이 명창이다. 서편제, 동편제에 비해 기를 피지 못하였으나 판소리, 가야금산조의 병창으로 유명한 심정순(1873~1937)을 1세대로 하여 2세대는 장남 재덕, 장녀 매향, 작은 딸 화영으로 맥이 이어지며, 조카 심상건은 황병기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3세대는 심수봉으로 이어지며, 4세대인 이애리는 화영의 외손녀다.³⁰⁾

윤이상(1917~1995)

1966년 도나우징겐 음악제에서 ‘예악’을 초연하여 큰 관심을 받는다. ‘나비의 꿈’은 노장사상과 서양음악의, 완벽한 통합이라는 평을 듣는다.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에서는 쉐베르크의 음기법과 한국의 정악(正樂)의 절묘한 접목이라는 평을 듣는다. 1971년 독일로 귀화한 후 베를린 예술대학 정교수가 된다. 1972년 뮌헨 올림픽 개막축하 공연으로 오페라

‘심청’이 무대에 오른다. 동도서기(東道西器) 즉, 동양의 음도(音道)에 동양의 문사철(文史哲)과 자연을 담아 서구의 방법으로 노래하였다는 평을 듣는다. 가곡, 창, 북, 대금, 장고, 가야금 등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나 악기가 자주 등장한다. 유럽음악의 성자로도 불리고, 현대음악의 보편적 길을 열었다는 평을 듣는다.

‘사람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나게 한 음악의 철인이자 음악의 도인’으로 칭송된다.³¹⁾

K-pop의 활동상

Teddy Riley는 1990년대에 hip hop과 R and B(Rhythm and Blues)를 접목하여 New Jack Swing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음악가이다. K-pop에 빠져 K-pop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K-pop에 대하여 “Sound 자체도 훌륭하지만 노래에 영혼(spirit)이 담겨 있어 놀랐다. New Jack Swing과 K-pop은 모두 영혼을 가득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정문화(情文化)’에 크게 매혹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는 음악도 깊은 영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고, K-pop이 국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통서예

추사 김정희(1786~1856)

추사는 제주도에서 절도위리안치(1840년)형을 받은 후 8년 후(1848년) 해배된다. 추사체는 제주도 유배 시 완성된다. 경학, 금석학, 고증학에 능하였으며 그의 서예는 시서화(詩書畫)의 합일이라는 평을 듣는다.³²⁾

창암 이삼만(1790~1845)

전주 태생으로 호남의 추사라고도 불리며, 거침없이 물이 흐르는 모습을 띤다고 하여 유수체라 일컬어진다. 창암체는 글씨이면서 그림이고 동시에 붓으로 추는 춤, 필무(筆舞)라고도 불린다. 유장한 판소리 가락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구슬픈 창이 애간장을 녹이기도 한다. 시서화(詩書畫) 삼매의 경지에서 글씨를 썼던 명필이었다. 동물도 놀라는 신필(神筆)로 알려져 있고, 시서금(詩書琴)의 삼매경이 글씨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³³⁾

전통 및 근대 회화

정선(1676~1759)

겸재의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는 실재의 경치를 바탕으로

로 그린 산수화로서 이것이 완성되면서 우리의 산수화는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 또한 그는 중국의 남종문인화와 북종문인화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는 금강산을 즐겨 그림의 소재로 삼았는데 총체적인 존재로서의 금강산을 그리려고 노력하였다. 금강산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소리까지도 그려내려고 하였다.³⁴⁾

김병기(1916~)

재미화가로 2014년 12월 2일부터 3개월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제1세대 화가이자 미술평론가로 일본 유학시절,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작가 이상 등과 교류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갈파한다.

“나는 비형상에서 형상을 찾고,
고전과 전위를 동시에 추구하고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에 서 있다.”

대극적인 상황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전통 춤

문장원(1917~2012)

전라도가 소리의 땅이라면, 경상도는 춤의 땅이고 특히 동래춤이 유명하다. 낙동강 백리 뒤편에는 안동벌의 하회탈춤이 있고 아랫물에 동래야유가 있다. 동래야유는 가무음극(歌舞音劇)이 어우러진 토종 오페라이며, 학춤, 할미춤, 문딩이춤, 양반춤, 요동춤 등 다양한 춤이 포함되는데 그 중 특히 문장원의 입(立)춤이 뛰어나다. 그의 입춤은 정중동(靜中動)의 춤이요 선화(禪畵)처럼 움직임을 최소화한 춤이다. 그의 장기춤의 하나인 원양반탈춤은 관복을 차려입고 잡스러운 동작은 모두 생략한 자세로 무기교의 기교와 절제미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평을 듣고 있다.³⁵⁾

최승희(1911~?)

서울 출생으로 우리 고전 무용에 바탕을 둔 창의적이고 다분히 민족적이면서도 국제적인 무용가다. 일본의 현대 무용가 이시아 바쿠의 공연을 관람한 후 크게 감동을 받아 음악가의 꿈을 접고 무용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보살춤, 장교춤, 궁중무, 승무 등 전통무용을 재창조하며, 지속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춤을 창조해 낸다. 그의 춤은 피카소, 마티스, 로맹 롤랑, 가와바타 야스나리, 주은래 등 저명인사들을 크게 감동시키면서 일약 세계적인 무용가

로 발돋움한다. 미국 전역, 파리, 브뤼셀, 밀라노, 피렌체 등 유럽 전역을 순회공연하였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에서도 공연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³⁶⁾

전통문학

윤선도(1587~1671)

1637년 보길도에 들어가 은거하면서 자신의 이상향을 만든다. 그의 시에서는 시가무(詩歌舞)가 하나가 된다. 특히 시(詩)와 가(歌)가 하나가 된다. 산중신곡(山中新曲)에서의 곡(曲)은 노래가락이며,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의 사(詞)는 악부의 한체(體)를 이룬다. 오우가(五友歌)의 가(歌)는 음악이 따르는 노래를 뜻하며, 유희요(遺懷謠)의 요(謠)는 음악이 따르지 않는 노래이며, 고금영(古琴詠)의 영(詠)은 소리를 길게 빼어 시가를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음악과 시가 하나가 되고 있다.³⁷⁾ 시가뿐만 아니라 경학, 천문, 지리, 건축에도 능하였던 통섭적인 인간이었다.

이미륵(1899~1950)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본명은 이의경이다. 경성의전 재학 중 반일운동을 펼치다가 수배되자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뷔르츠부르크 대학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수학하고, 뮌헨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의 자전적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독일 최우수 소설로 선정되어 괴테의 글과 함께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독일에서 가장 빼어난 미문이라는 평을 듣고 독일 신문의 서평만도 100여 회 이상 실리며, 영어,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듣는다. 전후 독일 문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작품으로 동양문화의 핵심이 되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자연인을 추구하면서 동서양의 만남을 작가 자신 속에서 완성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그는 독일에서 서예, 한시, 동양철학, 한학, 한국학을 가르치며 조선의 선비정신을 독일에 심었다.³⁸⁾

정지용(1902~1950)

옥천 출신이다. 1920년대 도쿄의 도지사 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언론사의 주간과 이화여자대학 교수를 역임한다. 6.25 당시 납북되었으나 월북시인으로 오인되었다가 1988년 해금되었다. 22세에 너무나도 유명한 시 ‘향수’를 발표한다. 김병중은 그의 시에서 그림과 색채를 보고, 바람소리, 물소리를 본다. 아무 시편을 들추어도 거기에는 그림이 있고 수묵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쓰고 있다.³⁹⁾

무산(霧山)스님

신흥사 스님으로 속명은 오현(五鉉)으로, 오현스님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최근 시조집을 내었다. “왜 하필 시조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농부들의 도리깨질, 다듬이질 등 민족의 생활리듬은 3박자로, 시조의 구조가 초장, 중장, 종장의 3박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불교에서의 깨달음의 경지를 세간에 전하는 방법으로 선시(禪詩)와 문장을 사용하여 왔다. 즉 선과 시조(時調)가 하나가 된다. 경허(鏡虛)의 경지도 역시 ‘선수행과 시조는 하나다.’

전통도에

아사카와 다쿠미(1891~1931)

일본 야마나시현 출신으로 1914년 조선으로 건너와 총독부 산림과와 임업시험장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어린이와 도자기, 옹기에 매료되어 ‘조선 도자기의 귀신’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그는 도자기에 사용자, 예술가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세월의 때가 묻게 되면 더불어 예술성도 얹혀진다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실용성이 뛰어나면 예술성이 떨어지고 예술성이 뛰어나면 실용성은 떨어지는데 그는 한국의 도자기에서 실용성에 깃든 예술성을 발견한다. 그는 <조선의 소반>, <조선도자명고>라는 책도 출판하였다.⁴⁰⁾

전통건축

남대문

승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웠다. 이것은 관악산이 주산 북악산보다 높고 커서 불의 산이라 불리는데 관악산의 불(火)을 세로로 써서 불로써 불을 제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남대문 밖에 남지라는 연못을 파서, 불로부터 보호를 하였으며, 경복궁 앞 해태상을 세워 3중으로 경복궁을 보호하고 있다. 해태는 불을 먹고 사는 동물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제압하는 힘을 갖는 전설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일제기에 남대문 등 성곽을 훼손시켜 부두공사 명목으로 인천까지 가지고 가서 바다 속에 넣어버리고 종묘와 남산 사이 공창지대를 만들었다. 원구단은 고종황제가 황제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만든 구조물로서 하늘의 아들이 되었음을 알리는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곳으로 북악산과 남산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상징성을 갖는데 이 맥을 끊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철도호텔(조선포텔)을 세웠다. 우리 민족은 심지어는 무생물인 건축물에도 우리의 혼이 스며들어 있다고 믿었다.⁴¹⁾

이름(작명)

우리 민족은 이름 속에 혼이 있고 운명이 있다고 믿는다. 아명(兒名), 관명(冠名), 자(字), 호(號) 등 많은 이름을 갖는다. 또한 어른의 이름을 댈 때에는 ‘--자 --자 이십니다’ 또는 ‘--자 --자를 쓰십니다’라고 표현하며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심지어 왕의 이름자나 음이 같은 글자를 쓰지 못한다는 피휘법(避諱法)이 고려 광종 15~16년경 제정되는데 휘(諱)란 어른의 이름 또는 제왕, 성인, 상급자 또는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이른다. 성종 즉위년 1083년 11월에 피휘법이 공식 공포된다. 이후 왕의 이름은 대체로 글자를 새로이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를 벽자(僻字)라고 부른다. 한국의 전통 작명 원리로는 항렬자 따르기가 있는데 이는 형제자매들이 혼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양식으로 가톨릭에서 한낱한시에 세례를 받는 경우, 권신일, 권문일, 김경일, 장양일 등 우리의 돌림자를 따르는 작명법을 쓰기도 한다.⁴²⁾

조선왕조실록

왕이 죽은 후 그 다음 해부터 편찬된다. 실록청이 개설되며, 춘추관과 예문관들이 참여하여 기록한다. 사초는 왕과 대신들의 논의와 사건들과 상소의 내용들을 매일매일 적은 기록이다. 사관(史官)은 내외조 4대까지 흠이 없어야 하며, 기혼이어야 한다. 사초의 기밀은 엄수되어야 하며, 여기는 경우 자 손까지 엄벌을 받는다. 임금도 사초를 보지 못한다.⁴³⁾ 1997년 우리의 영과 혼이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일본과 중국에도 실록이 존재하는데 일본은 불과 수십년에 대한 기록 밖에 없고 중국인 경우에는 왕이 직접 관여하여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오직 우리의 실록만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한 글

1443년 12월 28자 훈민정음이 세종에 의해 창제되었다. 위낙 신하들의 반대가 심하여 극비리에 진행된 사업이었다. 실록에 첫 기록이 창제가 완성된 기록이었다.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3년 후 1446년 9월 <훈민정음 해례본>이 출판되었다.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동기, 과정, 창제원리 등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창제원리는 모음은 동양철학 음양설의 삼재 즉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글자(•, ㅡ, ㅣ)를 바탕으로 삼는다. 자음은 오행설과 발생기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세종대왕이 최초이다. 세종대왕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글자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먹기 전에 익힐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10일이면 배울 수 있는 글자라고 쓰고 있다.⁴⁴⁾

모든 언어학자들이 한글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자 중 최정상에 있는 글자라고 칭송하고 있다. 문자의 배열을 3분법에 의하여 입체적으로 한 점, 다른 언어들에게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모음에 분명한 형태를 부여한 점 등은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글의 독창적인 점으로 들고 있다. 오로지 한글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라고 자부를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한민족의 영과 혼을 표현하고 느낄 수 있는 문자이다.

고 찰

이상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관을 보면 신이 그리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보다 약간 나은 능력을 지녔을 뿐이다. 또한 신들 간의 차별도 별로 없다. 사관에 있어서도 생(生)과 사(死)가 단절된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념이다. ‘돌아가시다’는 말은 어딘가에 있다가 이승으로 와서 지내다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개념이다. 저승관 또한 이승과 저승이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속신앙은 글자 그대로, 무(巫)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하늘과 땅, 삶(땅)과 죽음(하늘)을 이어준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가신신앙이 극도로 발달된 민족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집안 곳곳에 신령이 살아있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신령과 함께 살고 있다. 이와 같이 무속적인 요소, 가신신앙과 같이 확고한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의 종교에 대하여 거부감을 지닌 적이 없다. 외래의 종교에 대하여 아주 관대한 태도를 지닌다. 단지 위정자들이 불안하여 종교탄압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외래의 종교는 변형된 상태로 우리의 민간신앙에 적응을 하게 된다. 불교를 믿으면서도 산신 불공, 칠성불공을 함께 드린다. 유교식 제사를 모시면서도 무당이 굿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기독교 또한 외국의 기독교 의식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의식들이 관찰된다. 새벽기도회, 신기도, 철야기도, ‘주여 3창’ 등 모두 무당의 굿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의식들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영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는 다양한 문화사상들이 있다. 이에 전통놀이, 음악, 미술, 서예, 춤, 문학, 도예, 건축, 작명, 한글, 실록 등이 포함된다. 이들 문화사상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대극의 합일사상(Ge-

gensatzvereinigung)’이다. 대극적인 가치, 상반되는 가치들,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들 문화사상의 핵심사상이 되고 있다.

하회별신굿 탈놀이에서는 놀이 속에서 양반문화와 서민문화가 하나가 되고 있다. 헛제사밥 놀이에서는 가난한 유생과 부자가 하나가 되고 있다. 전통음악에서는 농악과 아리랑이 우리의 전통 혼을 현재까지 잘 보존-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진도의 노래들에서는 일과 노래, 그리고 놀이가 하나가 되고 있다. 판소리는 동편제의 대범함과 웅장한 기풍이 서편제의 정교함, 애잔함과 대극의 합일을 이루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윤이상도 동양사상과 서양의 기법을 절묘하게 통합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K-pop에 대하여는 New Jack Swing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Teddy Riley가 한국의 노래에 영혼이 실려있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평한 바 있다.

전통서예에서는 김정희의 추사체는 시서화(詩書畵)가 합일되었고, 이삼만의 창암체는 시서금(詩書琴)을 합일시켰다. 전통회화에서 겸재는 중국의 남종문인화와 북종문인화를 청합하여 진경산수화를 창시하였다. 겸재는 진경산수화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라고 불린다. 현대화가 김병기는 우리나라 제1세대 화가로 스스로 “나는 비형상에서 형상을 찾고, 고전과 전위를 동시에 추구하고, 동양과 서양의 교차점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 춤에서 문장원은 ‘무기교와 기교’의 합일을 이루고 있다.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는 우리나라의 전통무용을 서양무용과 접목하여 독자적인 춤을 창조하여 전 세계를 매료시킨다. 전통문학에서 윤선도는 시(詩)와 가(歌)가 하나가 되어 산중신곡, 어부사시사, 유희요, 고금영 등을 창작하고, 현대에 와서 이미묵은 조선의 선비정신을 독일의 문학계에 불어넣어, 그가 발표한 자전적 소설 ‘암록강은 흐른다’는 독일의 가장 빠른 미문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괴테의 글과 나란히 독일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시인 정지용은 시와 그림, 그리고 소리를 통합하여 시각과 청각을 통합한다. 우리 민족은 건축물에도 혼이 깃들었다고 여겼다.

남대문은 현판이 세로로 세워져 있다. 이는 관악산이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산보다 높아 관악산에 불이 나는 경우 경복궁으로 화마가 덮치는 곳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름 속에도 혼이 깃들었다고 생각하여 아명, 관명, 자, 호 등을 만들어 나이와 관직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다. 향렬을 따라 이름을 짓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휘법이라고 하여 임금의 이름에 쓰는 글자는 백성들은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조선왕조실록도 조상의 혼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마지막으로는 한글을 들 수 있다.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자 중 최정상 문자라는 평가를 받은 한글은 한민족의 혼과 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세종대왕의 걸작품이라 할 것이다. 백성에 대한 세종의 지극한 사랑, 왕과 백성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나온 걸작품이다. 우리 민족은 한글 하나만으로도 모든 민족을 통틀어 최고의 문화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이러한 대극의 합일 사상은 그대로 정신의학에 적용될 수 있다. 정신질환이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간의 불균형, 부조화로움 때문에 야기되는 질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따라서 치료 과정은 부조화로움을 조화롭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 된다. 조화로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간의 부조화로움에서 하나 내지는 하나 가까이 만들어주는 과정이 즉 치료과정인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즉, 정신분석 내지는 분석심리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치료자 자신의 내부에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하나 내지는 하나 가까운 상태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이상적인 치료과정이 되는 것이다.

결 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속의 영성을 살펴보고 그 공통점을 연구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영성의 특성이 정신의학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신관, 사관, 저승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속신앙과 가신신앙 역시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전통문학, 전통음악, 전통미술, 전통도예, 전통건축, 전통놀이, 전통서예, 전통 춤, 전통 시, 한글, 실록 등 전통문화의 상당 부분 속에 한국인의 영성이 녹아 있다.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은 <대극의 합일 사상>이다. 인간의 정신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병리도 이에 입각하여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치료 또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조화로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조화로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극의 합일'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전통문화의 영성의 특징은 정신의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영성 · 한국 전통문화 · 정신의학.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15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 연구재단 지산 이세종 문화정신의학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Choi JC, Jang DI.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Seoul: Science Books;2005. p.11-12, 20-21.
- 2) Kim KW. The academic fields of 21 century-where do we get the knowledge? In: Kim KW, editor. What do we study in the future? Seoul: Saenggakyui Namu;2009. p.15-35.
- 3) Cho SC. The concept of consilience in the field of psychiatr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2;51:349-358.
- 4) Hong 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opinion. 2nd ed. Seoul: Korea University Press;1996. p.32-33.
- 5) Kim KI.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ju: Kyomunsa;1991. p.396-398.
- 6) Hong 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opinion. 2nd ed. Seoul: Korea University Press;1996. p.36-38.
- 7)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24-27.
- 8)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149-153.
- 9) Kim KI.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ju: Kyomunsa;1991. p.394.
- 10) Kim KI.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ju: Kyomunsa;1991. p.396.
- 11) Kim KI.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ju: Kyomunsa;1991. p.397.
- 12) Rhi BY. Shamanistic treatment of death-spirit. New Med J 1970;13:79-94.
- 13) Kim KI.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ju: Kyomunsa;1991. p.196.
- 14) Hahn DS. The oriental concept of freedom. Proceeding of the Annual Academic Meeting of American Ontoanalytic Association; 1968 May 12; Boston, MA, USA.
- 15)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56-60.
- 16)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71.
- 17)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71-72.
- 18) Hong 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opinion. 2nd ed. Seoul: Korea University Press;1996. p.183.
- 19)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72.
- 20)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73.
- 21)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70.
- 22) Kim KI.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Paju: Kyomunsa;1991. p.197.
- 23) Hong IS.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ontemporary opinion. 2nd ed. Seoul: Korea University Press;1996. p.58-60.
- 24)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74-81.
- 25)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85-86.
- 26)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249-251.
- 27)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248-249.
- 28)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159.
- 29)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29-30.
- 30) Choi DH. What is Pansori? Seoul: Editor;1994. p.45.
- 31)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76-92.
- 32)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334-345.
- 33)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256-270.
- 34)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328-334.
- 35)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295-306.
- 36)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93-106.
- 37)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91-104.
- 38)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57-74.
- 39)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189-202.
- 40) Kim BG. A sketchbook tour (1). 2nd ed. Paju: Hyohyungchulpan; 2006. p.209-218.
- 41)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105-108.
- 42)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28-46.
- 43)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142-145.
- 44) Lee BK.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Seoul: Minsokwon;2007. p.154-175.